

## 한국 백세 노인들의 “오래 삶”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 경 혜 · 이 정 화\* · 김 주 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Korean Centenarians and the Meanings of “Living a Long-Life”

Han, Gyoung Hae · Lee, Jeong Hwa\* · Kim, Joo Hyu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RDA, Suwon, Korea

#### ABSTRACT

‘Long-life’ which has been the perennial interest to human beings also carries the risk of multiple losses such as the death of the family members and friends, the loss of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s. In that regards, living a long life to be the ‘oldest-old’ could mean not only a ‘symbol of successful aging’ but also a hardship and low quality of lif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issue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oldest old has been the subject of the much of the public and research concern in recent days. While there has been increased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subjective aspects of the quality of life and meanings attached to the extended life, most researches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oldest-old have focused only on the objective conditions of the quality of life such as health, economic status and housing condition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ubject meaning of “living a long life” in Korean society by investigating centenarians and their caregivers’ interpretations of aging experiences. Qualitative data were gathered from the forty-nine Korean centenarians and their caregivers through in-depth interview. Each interview was tape-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Researchers read each transcript a number of times to get some emerging themes. Most striking result was the fact that most of the centenarians express the ‘guilty feelings’ and try to offer the ‘excuses’ about their long life. This results were quite contrary to the results of the studies, done in Japan and western countries like Sweden, United States and Germany, where most of the oldest-old express quite positive interpretations about their long-life and take pride in their longevity. Lack of social support, cohor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ldest-old and the cultural interpretations linking the death of children to the long life of older generation are given as possible factors to these unique findings of Korean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living a long life, Korean centenarians, cultural interpretation, qualitative study

#### I. 문제제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과학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90세, 100세 이상의 초고령까지 생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서구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인구학적 추세가 계속된

\*본 연구는 2004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 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접수일: 2004년 8월 19일 채택일: 2004년 9월 8일

Corresponding Author: Lee, Jeong Hwa Tel: 82-31-299-0492

Fax: 82-31-299-0428 E-mail: sparrow@rda.go.kr

다면 100세 이상 노인들의 수는 매 1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cience News 2001). 이상 초고령 노인들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100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초고령 백세노인의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들 노인들의 일상세계와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에서는 약 20여년 전부터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실증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삶의 질을 파악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 연구로는 “조지아의 백세인 연구(Poon et al. 1992)”나 “스웨덴의 백세인 연구(Samuelsson et al. 1997)”가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atata 1992; Shimonaka et al. 1996; Zheng et al. 1993). 나아가서 이들 각국의 장수노인의 특성을 국가간 비교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Martin et al. 2001). 이러한 비교적 대규모의 양적 조사와 함께, 장수노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Futrell et al. 1993; Pascucci·Loving 1997; Wondolowski·Davis 1988)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양적연구를 통하여 장수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의 패턴을 밝히는 한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장수노인들의 생활양식과 오래 사는 삶의 사회문화적 의미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 사는 삶, 100세 이상을 사는 것은 삶의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의미에서 ‘성취’이자 Beard(1991)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공적인 삶(successful living)’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내포하고 있다. 초고령기로 접어들수록 시력이나 청력 등의 저하와 배우자, 친구, 혹은 자녀의 죽음까지도 경험해야 하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Pascucci·Loving 1997). 이런 맥락에서 ‘수명연장이 축복이 아닌 형벌이 될 수

도 있다’는 지적(임춘식 2001)도 제기되고 있다. 수명 연장만큼이나 ‘연장된 수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연장된 기간동안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삶의 질은 신체, 사회, 경제, 정신적인 면 등이 포함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Young·Long 1983). 개인을 둘러싼 삶의 객관적 상황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가 하는 주관적인 평가 역시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기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 등 삶의 객관적인 여건의 파악에 치중해 온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의 이러한 제한점에 주목하여 100세 이상의 노인과 그들의 가족원들이 ‘오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미부여는 이들의 삶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 문헌고찰

21세기 인류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인간수명의 혁명적 연장’은 장수에 대한 학문적·대중적 관심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노인이 갖는 가치는 과거에 비해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연장된 삶의 기간이 얼마나 행복하며 의미있는 것인가 하는 ‘삶의 질’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초고령 노인에 대한 학문적·대중적 관심은 무엇이 장수를 가능하게 하는가, 즉 ‘장수요인’을 찾는 데(김성혁 1998; 최성재 2002; Martin et al. 1992; Poon et al. 1992; Shimonaka et al. 1996) 치중되어 있어, 초고령기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초고령기의 삶의 질에 대한 소수의 논의마저 경제적 상황, 건강, 주거환경 등 객관적 삶의 상태, 조건에 대해 치중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Bury와 Holme(1991)가 지적한대로, 개인을 둘러싼 삶의 객관적인 상황은 삶의 질의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는 하지만 항상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충분조건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초고령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기능 쇠퇴를 경험하게 되고, 배우자나 친구, 심지어는 자녀 등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서구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다양한 상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노인들은 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오래 살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The Iowa Stater 1998). 그리고 많은 초고령 노인들이 자신들의 현재의 삶을 “젊었을 때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오래도록 살아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의미있는 삶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지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삶의 질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 이때 삶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가 되는 ‘각본(scripts)’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언제부터 노년이 시작되는지, 노년기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과 역할이 노인에게 기대되는지 하는 중요한 측면들이 모두 문화적 해석의 구성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일 뿐 아니라 문화적 과정이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구성된 노년, 노화에 대한 이미지와 담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노인의 일상의 모습과 삶의 주관적 평가에 다층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문화적 전위부대’ 혹은 ‘개척자’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근대의 급격한 수명연장의 결과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삶의 단계를 처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대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생물학적 수명(life span)의 연장’에 ‘사회문화적 생애과정(life course)’이 뒤따르지 못해 적절한 문화적 지침없이 노년기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90세, 100세까지의 장수는 ‘기대 가능한 현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위치, 노년기 삶의 의미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의는 60-70세까지 사는 것이 드물었던 시대에

형성된 그대로 별로 바뀌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90세, 100세라는 생의 초고령기까지 살아남은 노인들은 이러한 연장된 삶이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할기대나 행동규범, 즉 문화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연장된 삶의 기간에 의미를 창출하고 부여하는 일이 전적으로 개인적 과제로 남겨지게 된 셈이다.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삶의 기간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평가를 만들어 내는 ‘문화적 각본(cultural scripts)’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경혜 2002).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오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맥락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작업은, ‘생물학적 수명의 연장’과 ‘사회문화적 생애과정’ 간의 간극을 메꾸고 현재의 문화와 인구학적 조건에 적절한 새로운 문화적 지침 마련을 위해, 그리고 초고령 노인에게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의 백세노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Centenarians : The Bonus Year」라는 책을 출간한 Adler는 “현재의 백세노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미래사회에서 증가하는 백세인들을 위해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떤 이슈들이 제기될 것인가를 예시해줄 것”이라고 한 바 있다(Wagner 1999). 즉 현재의 초고령 노인에 대한 연구는 초고령까지의 생존이 점점 더 보편적인 경험이 되는 미래사회에서 ‘생명의 연장-오래 삶’의 의미를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의 초고령 노인들의 현재 삶의 모습과 이들 노인과 가족들이 ‘오래 삶’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 내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오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삶의 맥락에서 괴리시키지 않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질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시·군·구별로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자(주민등록상의 연령)의 비율이 가장 높은 16개 지역을 선정한 후, 이 지역들 중 100세 이상자들의 수가 비교적 많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9개 마을을 최종 선정하여 2001년 7월에서 8월까지 인터뷰 대상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며 조사를 수행하였다<sup>2)</sup>. 노인의 전반적인 생애사(life history)와 가족과의 관계사(family history), 그리고 현재의 가족생활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노인의 거주공간 및 생활환경에 대한 관찰 및 이웃이나 친지들로부터의 이야기 수집도 병행하였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는 총 3인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는데, 개별 가족 방문시 연구자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한 명은 100세 노인을 면접하고, 다른 한 명은 노인의 가족을 만나서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진행은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과 가족의 '살아온 경험(lived experiences)'에 대한 주관적 이야기와 해석을 듣는데 비중을 두었다.

백세 노인들 중 치매 등 건강상의 문제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노인과 가족 모두 면접에 호의적이었고 연구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었다. 총 3차에 걸친 조사의 결과인 50여 개의 테이프를 필사본으로 만들었고, A4용지 1000여 장에 이르는 필사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노인과 가족원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부

각되는 주요 테마를 찾는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남성노인 8명, 여성노인 41명으로 총 49명이며, 연령은 최소 97세에서<sup>3)</sup> 최대 104세(평균 연령 : 101.45세)까지 이다. 100세 노인들 중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100세 이상 노인들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미국, : 4(Wagner 1999), 일본, 1 : 5(최성재 200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6명은 혼자 살고 있었으며 그 외 43명은 자녀나 배우자 혹은 친척과 함께 살고 있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신체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전적으로 혼자서 수행할 수 있거나 약간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였으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경우에는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들 중 노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은 '목욕하기'로서, 절반이상의 경우 부양자들이 목욕을 도와주거나 시켜주어야 하는 상태였다. 한편 식사하기 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87.82%) 혼자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경우, 가벼운 집안일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전화하기' 항목의 경우 주변의 도움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은 한명도 없었으며 전화 거는 것은 못하고 받는 것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도와주면 가능 범주) 역시 5명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 1) 경남 거창군, 경북 예천군, 경북 상주시,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 전남 함평군, 전남 담양군, 전남 구례군.
- 2) 본 연구는 의학, 가족학, 인류학, 사회복지학, 생태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수행한 한국의 백세노인에 대한 최초의 다학제적, 통합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질적 자료 외에도 백세노인과 가족의 사회심리적, 의학적 특성, 생활양식 및 지역사회 특성 등 백세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 3) 조사대상 노인들 중에 주민등록상에는 100세 이상으로 나타나 있지만, 음력 십이간지, 가족원의 연령구성 비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연령 확인작업을 거친 결과 실제 나이가 아직 100세에 도달하지 못한 노인이 섞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노인, 특히 백세인 조사에서 기록상의 연령 아닌 실제연령 확인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쟁 등의 요인으로 정확한 호적이 훼손되었거나 과거의 기록 자체가 부정확한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본 조사는 '오래 삶의 주관적 경험'이 연구의 초점이며, 이들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백세인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소수의 표집을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자들이 전화사용을 할 수 없었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가족원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4)

#### IV. 연구결과

##### 1. 죽는 것이 원이다 : 죄의식과 변명

호랭이 따라우, 호랭이 띠가 뭘 죄가 이렇게 많은 지 이렇게 오래 사는가 모르겠소. (건강하세요?) 아이고 더 건강해서 뭇 허게, 안 간 것이 애가 터지요. 오래 이려고 있으게 뉘 부끄럽소. ... 죄가 많아라우 내가. - 이수영 할머니 -

한국의 백세 노인들은 자신들의 장수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백세노인들에게서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는 테마는 자신의 장수에 대해 표현되는 일종의 '변명'과 '죄의식'이었다. 많은 노인들이 연구자가 '오래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부끄럽다", "미안하다", "죄스럽다"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장수는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구자들이 백세 노인의 집에 도착해서 인터뷰를 시작할 때나,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면서 인사로 건네는 "오래 사시는 비결을 듣고 싶어 왔어요" 혹은 "오래하세요"라는 말에 대하여 많은 노인들이 "오래 살아 부끄럽다", "빨리 죽어야 한다",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죄가 많아 이렇게 오래 산다"는 등의 말로 대답을 대신하곤 하였다. 이렇게 누가 묻지 않아도 오래 살아 부끄럽다는 말을 하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고 죽는 것이 소원인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조의 이야기를 하는 노인들을 보면서, 연구팀은 노인들이 자신의 장수에 대해 일종의 '변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나 서구의 초고령 노인들이 대부분 자신의 장수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우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The Iowa Stater 1998)와 매우 대비되는 것이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이나 서구의 백세인들은 건강상태의 악화, 배우자, 자녀 등 가족원이나 친구의 죽음 등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오래 살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오래도록 살아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백세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등을 보고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현장조사의 첫날부터 관찰된 한국의 백세인들의 독특한 반응은 처음에는 연구자들을 당황시킨 경험이었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백세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구의 기존연구들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는 연구자들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일종의 도전이었으며 그 후 조사에서 연구자들이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일본이나 서구의 백세노인과 한국의 백세노인들에게 이렇게 상이한 언어로 자신들의 장수를 표현하게 하는가, 과연 오래 산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노인들과 가족들의 경험을 주의 깊게 따라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5)

- 4) 조사 지역의 선정과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유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한국 100세 노인과 가족(한경혜 등, 2002)"을 참조하시오.
- 5) 처음 본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시작한 연구문제는 '한국의 백세노인들은 어떠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하는 비교적 광범위한 것이었다. 현장조사의 처음 1-2일간 노인들을 만나면서, 노인들이 자신들의 장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관찰하게 된 것이 '오래 삶의 의미' 탐색을 중요한 연구문제 중의 하나로 구체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에 관한 자료의 수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나 수집된 자료로부터 연구의 주요 질문이 출현(emerging)되거나 연구문제가 구성 혹은 변경되는 것은 질적연구의 매우 중요한 강점의 하나이며 특성인 것으로 지적된다. 뚜렷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고 구조화된 질문을 통하여, 연구자가 알고 싶어 하고 중요시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양적연구는 '연구문제→자료수집→가설의 검증' 식의 순서로 진행되는

조사대상 노인들의 '오래 삶'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표현과 의미부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첫째는 '객관적 상황'에 기초한 해석이다. 즉 노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연 한국노인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적 요인들이 '오래 삶'을 '괴로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지 탐색해 보는 접근이다. 이런 경우 일본이나 서구의 노인에 비하여 한국의 백세인들의 삶의 상황적 요인들이 특별히 열악하여 정말로 더 살고 싶지 않고 장수가 고통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문화적 해석'이다. 한국의 백세노인들의 '오래 삶'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반응은 진심의 반영 이라기보다는 노화 및 장수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노인들이 선택한 '말하는 방식'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즉 한국노인들이 일본이나 서구의 노인들에 비하여 특별히 더 불행하거나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기보다는 노화/나이듦에 관련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어휘나 해석 등이 반영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2. 열악한 삶의 질 :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우선, 한국의 백세 노인들이 '오래 삶'에 대해 연결시키는 부정적 언어와 설명을 그들의 현재의 객관적 상황과 삶의 질이 좋지 않음을 반영하는 결과일 가능성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세 노인들이 연구자들에게,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죽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에는 현재 삶이 괴롭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의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요인으로는 초고령과 함께 오는 여러 가지 상실, 특히 신체적 기능약화로 인한 의존성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래 사는 것, 특히 100세 이상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Pascucci · Loving 1997). 신체적 ·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어려워지면서 개인의 생활 환경이 축소되고 사회관계도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삶의 객관적 상황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 노인들 중에서도 특히 건강이 나쁜 노인들일수록 '몸이 괴롭고, 몸이 괴로운 만큼 마음도 불편하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였다. 시력이나 청력의 약화는 활동성을 특히 제한하게 되고 일상의 삶을 매우 타인의존적인 것으로 만들게 된다. 김선이 할머니는 일상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의존적인 삶을 "먹을 거 주면 먹고, 잠이나 자는 죽순같은" 생활이라고 표현한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다 소용없어"라는 말에 응축하고 있다.

(누가 보고 싶으세요?) 누가 보고싶은 지도 모르고 그냥 덤덤하니 사요. 나같은 사람은 시방 죽어도 괜찮은디 뭐랄라고 그러요? (오래 살아야죠 할머니) 산 것도 몰케중나요(싫중나요) (중략) 오래도 살고잡도 안혀요. (중략) 이쁘나 고우나 늙어서는 다 소용없어... 내가 속이 헝크러져서 몰라라우, 나는 그런 것 저런 것도 모르요. 바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알제. 나는 죽순만이로 밥을 주면 먹고, 안주면 안먹고, 잠이나 자고, 그러고 상께 모르겠소. 늙은게...

- 김선이 할머니의 이야기 -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의미와 긍지를 가지는 것은 일정부분 삶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통제감(mastery)은 그런 의미에서 노년기 정신건강의 핵심 축을 이룬다고 지적된다. 연구자들은 신체적으로 쇠퇴하여 며느리에게 목욕시중을 받는 시아버지나 사위에게 목욕시중을 받는 장모, 그리고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 백세노인들로 하여금

직선적 과정인 반면, '연구대상자의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연구대상자가 중요시하는 테마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연구문제가 구체화되는 질적연구 방법은 연구의 전 과정동안 연구문제의 구체화나 수정이 가능한 나선형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질적연구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가 '좋은 연구문제, 좋은 질문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살아있음’의 가치에 의문을 가지도록 만들고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 3. 사회정책적 지원의 부족 : “지식에게 못할 일을 시키는”

그런데 주목할 점은, 건강이 특별히 나쁘지 않아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백세인들도 상당수 이런 부정적 언어로 자신의 장수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대로, 생애 최종단계에서의 건강악화와 의존성은 비단 한국의 백세인만이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고 범 문화권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서 죽어야 할 텐데”라는 표현과 반응은 한국의 백세인에게서만 주요 테마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서구의 문화가 ‘독립성’을 핵심가치로 삼는 반면, 한국은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동양문화권에 속하고 전통적으로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을 규범으로 여기며, 효성스러운 자녀를 가진 ‘복된 노인’으로 여겨온 점을 고려하건데, 유독 한국의 백세노인들에게서 ‘오래 삶’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관찰되는 것을 ‘의존성의 증가에 따른 통제감의 약화’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감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백세노인들과 일본이나 서구의 백세노인들의 삶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유독 한국노인들이 장수에 대해 부정적일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일본이나 서구에 비하여 한국은 초고령 노인들에 대한 사회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인부양의 과제가 전적으로 개별 가족원에게 맡겨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일본이나 서구에서는 노인 집단을 젊은 노인, 중간노인, 그리고 초고령 노인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노인집단들 간에 신체, 인지적 기능 및 사회경제적 자원보유 정도,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 정도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감안하는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의존성이 높은 초고령 노인들은 사회적 지원의 특별하고도 주요한 타겟이 된다. 반면,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초고령, 백세노인을 타겟

집단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특히 전무한 실정이다. 금번 현장조사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백세노인들의 삶의 질은 전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개별 가족의 삶의 질, 즉 경제적 지위나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가족원들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부양의 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이 속한 가족이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자녀세대가 백세노인에게 적절한 부양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못하거나, 제공할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백세노인 노인들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였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약 1/3은 자신들의 건강이 나쁠 뿐 아니라 이미 스스로도 노년기에 속하는 자녀세대들의 건강상태도 나쁜 경우라든지, 전반적으로 열악한 한국농촌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놓여있어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세인들이 자신들의 장수를 긍정적인 어휘로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였다.

초고령 노인들의 부양이 전적으로 가족원에게 부담지워진다는 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백세노인들을 ‘죽고싶다’고 이야기하도록 만는 요인이 될 수 있다. Hagestad(1986)는 부모의 장수가 세대간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부모가 너무 오래 살아서 부모와 자녀 모두 고령 노인의 범주에 들게되는 경우, ‘가족 내에서 누가 노인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가’ 하는 점에 대해 세대간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한국과 같이 세대간의 위계를 중시하고 자녀의 노부모 부양을 강력한 규범으로 강제하는 문화권에서 더욱 첨예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것을 규범화해 왔다. 따라서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건강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식주에서부터 일상의 대부분을 자녀의 시중을 받게 된다. 백세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세대에게는 상당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백세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미 스스로가 노인의 범주에 들어간 자녀들에게<sup>6)</sup> 부모부양을 지속시키는 것을 백세노인들은 “못할 일을

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런 것도 미안스럽고 저런 것도 미안스럽고  
그래서 어서 죽으면 쓰겼어, 죽도(죽지도) 안하  
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 두달도 아니고 이  
렇고 내가 살면서 (자식들에게) 못할 일을 시킨단  
말이야. - 박수연 할머니 -

즉, 많은 백세노인들이 자신의 존재가 가족과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어서 죽어야 할텐데”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오래 삶’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표현은 초고령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한국의 상황에서, 백세노인들이 자녀에 대한 감사함, 미안함 등의 심적 부담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겠다.

#### 4. 한국의 백세인들의 코호트적 특성 : “가슴속에 묻은 자식”

위에서 논의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쇠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나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의 감정을 넘어, 한국의 백세노인들에게 있어 오래 사는 삶은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 오래까지 살아 죄스러운 삶’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대상 노인들의 상당수가 “자식이 먼저 저세상으로 가는 험한 꼴”을 보아야 했다는 사실에 있다. 현재의 백세노인들은 19세기 말에 태어나 격동의 한국역사를 온 몸으로 체험한 코호트(cohort)이다. 젊은 시절엔 일제 강점기를 살아내고, 6.25 한국전쟁을 치렀으며 지역에 따라 ‘거창 난민 학살사건’, ‘여순반란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또한 극심한 빈곤과 열악한 의료수준 속에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생활해 온 세대이기도 한다. 여러 역사적 사건과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의 극심한 빈곤 속에서 많은 백세노인들이 자식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 “죽지 못해서 살지, 자식을

앞에 죽이고. 그거는 죽는 거 보다 더하지 않아요?”라는 조현기 할아버지의 말처럼, 자식의 죽음은 그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생애사건(life event)인 것으로 지적되어 오는데, 그런 와중에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이들 백세노인들에게 자식의 죽음을 더욱 고통스러운 것으로 경험하게 한 듯 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고통이 한국의 백세노인들이 표현하는 ‘죄의식’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죄의식은 Myerhoff(1978)가 언급한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survivor's guilt)’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다. Myerhoff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대량학살을 피해 살아남은 유대계 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종의 죄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관찰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죄책감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동년배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이 ‘운이 좋은’ 것이었던 만큼 동시에 고통일 수 있으며, ‘현재 살아있음을 누리는 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치르는 댓가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국의 많은 백세노인들은 연구자가 묻지 않아도 먼저 자식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는 자신보다 먼저 간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혈연 중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건대 자식의 죽음이 가지는 부정적 의미는 특히 클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이수영 할머니는 죽어서 아들 묘 옆에 묻히는 것이 원이라며, 하루에도 몇 번 전쟁 때 죽은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다고 하였다.

어제서 안테러가냐, 나 데려다가 가른 니 곁에  
와서 누워 있을란다. (아들한테?) 아들한테... 가  
른 그러지라. 어서 가기만 했으면 쓰겼는디 지랄  
로 안가요. - 이수영 할머니 -

자녀의 죽음이 백세노인들의 오래 삶에 대한 조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은 자식을 앞세우지 않은 노인들과의 비교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6)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구조가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장남부부가 노부모부양의 책임을 가진다. 백세노인은 조혼이 규범인 시대에 결혼을 한 코호트이므로 대부분 상당히 이른 나이에 출산을 시작하여, 백세인의 장남들도 대부분 70대 후반-80대에 속하는 연령분포를 보인다.

다. 자식을 앞세우지 않은 경우에는 “오래 살았어도 자식들이 하나도 축 안 나고 잘 사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큰 축복인 동시에 자신의 삶이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오래 살아도 손자도 아픈 놈도 없고  
그런게 그것을 믿고 있어. (중략) 나이 많아도 그런 것만 그저... 집안이 편안~한게. (중략) 이렇게 오래 살아도 자식들이 손자들이 미령한게 그것만 믿고 사요.  
- 조선주 할머니 -

자녀를 앞세움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자녀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노인들의 당당함, 이 두가지 모두에는 ‘죽는 순서’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 ‘죽음’이 생의 마지막 과업이라면, 그 ‘죽음’을 언제·어떻게 맞이하느냐는 노년기 과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그리고 개인의 일생을 얼마나 잘 정리하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오직 인간만이 죽음을 자연의 순리에서 벗겨내어 문화의 틀로 가꾸어 놓았다고 한다(Levin 1992: 조명옥 1997에서 재인용). 무엇이 ‘좋은 죽음’인지에 대한 생각 역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는 ‘자식을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것(한나영 등 2002: 김신미 등 2003에서 재인용), 즉 ‘죽음의 순서’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매우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나타난다. 연구자들이 만나본 한국의 백세노인들 뿐 아니라 부양자녀들 역시 이러한 죽음의 순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순서가 어긋날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

꼭 순서대로 가야 한다, 이것이 문제야. (근태 돌아가시는데 순서 있나요?) 아이고 꼭 순서대로 가야한다, 내가 먼저 앞에 가면은 모양이 아니다 그 말이지. 어머니가 가시고 내가 뒤에 가야 한다 시방 순서가 바뀔까 걱정이다 그 말이어.

- 전봉녀 할머니의 아들 -

죽음의 순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어느 현자(賢者)가 집안의 번영을 위한 현판에 쓴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손자가 죽는

다”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 가문의 번영을 축원하는 현판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가득 썼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현자는 이것이 바로 일의 자연적인 순서이며,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서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고 한다(Hagestad 1986). 죽음에는 순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크고 작은 생애사건이 순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애사건의 시기 및 순서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는 ‘사회적 시간(social time)’으로 개념화(한경혜 1993)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시간표가 어긋났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실증연구들을 통하여 보여준 바 있다.

##### 5. 어긋난 순서에 대한 문화적 해석 : “자식 잡아먹어서 오래 사는”

오래 사는 것을 “하늘에 닿은 죄”로 표현하고 있는 한국의 백세인들의 죄책감을 역사적 사건의 와중에서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는 코호트적 특성 및 죽음의 순서에 대한 사회적 시간표의 개념을 가지고 해석해 보았다. 그러나, 오래 삶에 대하여 자부심을 보이는 서구의 초고령 노인들의 경우에도 자녀의 죽음이 드문 경험이라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보이는 유태계 노인들도 자신들의 노년기 삶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Myerhoff 1978) 등을 고려하건데 과연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한국의 노인들이 서구에 비하여 가족중심, 혈연중심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문에 또다른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의 백세노인들이 ‘자신의 장수’와 ‘자식의 죽음’을 직접적 인과관계의 형식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의 죽음, 단명(短命)함을 ‘자신이 오래 살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가 오래 살

아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표현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 지금 누구하고 사세요?) 손자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살아요. 나는 전부 다 (자식들) 잡아먹고. (중략) (앞으로도 오래 더 사시겠어요.) 안돼요, 나가(내가) 이제 자식을 잡아먹어서 안돼요. 나 아들 다 잡아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오래 사시는 분이 되셔야죠) 오래 살면 뭐 하는가? 못합니다. 험한 꼴을 당하니... 큰아들 죽었지, 작은아들 죽었지, 전부 다 죽었어

- 조현기 할아버지 -

부모의 장수를 자식의 짧은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해석은 백세노인뿐 아니라 부양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부양자들에게 무슨 이유로 노인이 100세 넘게 생존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명을 타고 났다”고 보거나 식사습관과 같은 노인의 생활양식과 연결시키는 중도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상당수의 사례에서 노인의 장수를 ‘자녀의 수명’과 연결 지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노인의 장수를 자식의 죽음과 연결시켜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간 자식의 명을 이어서 살아주신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식을 잡아먹어서 오래 산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매우 흥미로운 논의점을 제공한다. 장수요인 및 장수에 대한 해석을 다룬 외국의 연구에서는 건강, 식생활, 생활습관 등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며, 노인의 장수를 자녀의 죽음, 수명과 연결시키는 문화적 해석이 보고된 적이 없다.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공유되는가를 알아본 결과, 연구자가 만나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부모가 장수하면 아들의 기를 뺏어서 아들이 먼저 죽기 쉽다’는 이야기를 믿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 소개하는 구순위 할머니의 딸의 이야기는 이러한 문화적 해석이 백세노인 뿐 아니라 자녀세대에게도 공유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아들 집에 가시라고 해도) 아들, 딸 죽은 것도 그런데 뭐 할려고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아들 치이라고 거기 가서 살아 해요. 고집이 저리 세서... (아들 치인다고?) 응 오래 산 사람이...아들 잡아먹을까봐 (중략) 자녀들끼리는 그런 얘기하지요. 아 이제 그만 살고 살만큼 살았으니까 돌아가셔야 할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뭐가 걱정이 되어서예요?) 혼자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또 자식들도 안 좋은 일 있고, 자식들이... 저러다가 (자식들 중) 누가 또 죽으면 어쩔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또 앞설까봐?) 응. 그런 꼴 안 보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들명은 아들 명, 딸 명은 딸 명 다 각각의 명이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들 말이지, 촌에 말은 부모가 오래 살면 자식이 치인다고 (말이) 있거든 옛날부터 (아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어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있소? (아 그런 말이 여기도 있구나. \*\*마을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다 있어요 촌에는, 자식들이 치인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노인들이 하시는구나) 아 그래요.

- 구순위 할머니의 딸 -

평균수명이 짧고,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크던 시절, 60세를 넘기면 오래 산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에 90, 100세를 넘기는 장수는 분명 해석을 요하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지금보다 초고령 장수가 더 특별한 경우였을 당시에는 이들 초고령 노인은 자녀를 앞세울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부모의 장수를 자녀의 죽음과 연관하는 해석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흔히 볼 수 없는 초고령까지의 장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 있을 것이다. 101세인 김덕훈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70세의 며느리는 남편 사별 후 약 30년간을 시어머니와 같은 방을 쓰다가, 2년 전 “밤에 잘 때 저승사자가 와서 당신을 노인네인줄 알고 잘못 바꾸어 데려갈 수 있다”는 점쟁이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이후로 ‘무서워서’ 시어머니와 다른 방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순서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노인의 장수가 자녀세대의 죽음과 연결짓는 문화적 해석의 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명옥(1997)은 자손의 죽음이 노인의 죄 탓이라는 사회적 관념은 '복된 죽음'과 '욕된 죽음'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여 노인들의 생애 대한 애착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즉 사회적으로 '못볼 꼴'을 보지 않고 적당한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복된 죽음'으로 간주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위엄 있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고령까지의 장수를 자녀의 수명과 연결짓는 해석이 문화 내에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기능적 측면이 있는 동시에 노인으로서 하여금 자신의 '오래 삶'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고 죄의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은 행불행(幸不幸)을 하늘의 소관으로 생각하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이규태 2000). 즉 불행을 하늘이 주는 벌로 생각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킨다는 것이다. '자식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불행을 부모는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벌'로 해석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기대 이상의 긴 수명을 자식의 수명과 연관시키는 한국사회의 속설은 노인들에게 '오래 삶'을 죄스러운 것,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그리고 변명해야 하는 것으로 의미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의미지움이 특히 한국의 백세노인에게서만 중요한 테마로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에 초고령 장수에 대한 긍정적 어휘를 제공하는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반면 일본이나 서구에는 초고령 장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사회적 시각이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초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일본의 오기나와 지역에는 초고령까지 장수한 노인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97세가 되

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커다란 행사를 벌이고, 이러한 축하의식에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초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Katata 1992). 장수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의 공유가 바로 오기나와에 오래 사는 것을 '죄악'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 6. 백세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 "죽어야지" 그렇지만 "죽고 싶지 않다"

통상적으로 젊은이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반면, 노인은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한다(조명옥 1997).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있어 생의 핵심적인 과업인 셈이다(김영규 1989). 평균수명이 35세 정도에 불과하던 20세기 초반(김동일 2001)에 태어나 60세만 넘어도 장수하였다고 축하를 하던 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에게 있어 100세 이상의 장수는 김광선 할머니의 표현대로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다. 70대, 혹은 늦어도 80대에는 죽음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준비를 해 온 노인들에게 있어, 100세 이상의 삶은 너무도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온 기간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대상 노인들에게서 빈번하게 들을 수 있던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들은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일수 있다.

그러나, "어서 죽는 것이 원이다"는 백세노인들의 진술에 대해 이들 노인들을 가까이에서 부양하는 가족들은 대부분 노인들의 진심이 표현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다. 부양자들의 입장에서 가까이에서 지켜 본 부모님, 노인들은 전혀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며, 오히려 생애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오래 산 것에 대해 "원하지 않은 일"이라

7) 백세노인들 뿐 아니라 이미 스스로가 노인들인 자녀들도 부모가 100살이 넘도록 생존한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다. 환갑을 넘기면 큰 잔치를 하던 과거에 비하여 요즘은 장수하는 노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오래 삶'은 대개 80세-90세 정도에서 머무른다. 예를 들면 현재 102세인 김경선 할아버지의 72세 된 큰 아들은 김 할아버지가 80세가 되시던 해에 동네목수에게 부탁하여 관목으로 할아버지의 관을 짜놓았다. 그 목수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관이 썩을까 염려되어 헛간 천장에 매달아 보관해오고 있는 관을 20여년 동안 매년 한번씩 꺼내어 잘 닦고 손질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고 표현하고 또 “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노인들은 몸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보건소에 진찰받으러 가는 것을 즐기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먹거나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보약 등을 찾는다는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끔찍하게” 챙기는 경우가 많아 김애순 할머니의 며느리의 표현을 빌자면 “죽고 싶다는 것은 단지 말 뿐”이라는 것이다.

뒤 “오래 살아서 어쩔까... 하이고 어서 죽어야지”그러서. 그래도 아들네들 두서서 살고 당신 평생에 마음이 편한게 어서 죽어야 그런 생각은, 말 씀만 하시지 없는 것 같애 진짜로는... 다 살림을 해서 사는데(며느리가 다 살림을 말아서 하는데) 뭐 걱정을 했을까 평생에 일이란 걸 안 해본 양 반이...  
- 조선주 할머니의 며느리 -

실제로 연구자들이 ‘오래 사세요’ 라는 인사에 찔쩍 떨 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서 죽어야지’ 라고 응답하는 노인들에게 ‘정말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라고 정색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 다시 한번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는 노인들은 소수인 반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았다.

뭐랄라고 이렇게 오래 살거요. 아들며느리가 좋아서 이렇게 안 늙어, 근디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되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니) 언제 나 죽겠는가 불라고 그러요? 잠도 잘 자고 그러요. (중략) (의사한테) 나 언제 죽을지나 보시오. 이런거 해서 뭐한대요? (중략) (의사가 피부가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래 사시겠다고 하니까) 죽을까봐 기다려도 안 죽어. 옷(수의)이랑 다 해놓고 했는데. (할머니 정말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죽고 싶냐고? 몰라(웃음).  
- 염정희 할머니 -

노인들의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진심의 표현이 아니라면, 이는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귀한 것일수록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은 듯이 이야기하는 전통적 한국인의 ‘말하는 방식’의 표출일 수 있다. 즉 기대보다 긴 수명이라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기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 선

물을 귀하고 값어치 크게 여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은 예외적으로 긴 수명의 혜택을 누린 노인이 생에 대한 애착을 계속 보이는 것이 ‘염치없다’거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한국적 사고방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에 대한 애착 없음의 강조’는 반어법적으로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의 한국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백세노인들의 부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들도 상당수의 백세노인들의 “죽어야지”하는 이야기에서 오히려 “죽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신체적 쇠퇴와 의존성의 증가, 그리고 자식의 죽음 등으로 오래 사는 것이 편치만은 않지만, 평생 고생을 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이들 코호트들에게는 이들의 생애과정 중 어찌 보면 현재가 가장 편안한 단계이고 그래서 말로는 “죽어야지” 하면서도 생에 대한 애착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일수도 있다. 전쟁과 가난으로 먹을 것은 없고 자식은 배고파 우는 세월을 살아내야 했던 이들 노인들에게 있어 지난 세월은 국호연 할아버지의 표현을 빌면, “좋은 줄 모르고 살았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백세노인들은 “좋은 때가 어디 있었겠소? 옛날에 생겨난 것이 뭐 사람이다우?” 라는 강기순 할머니의 말처럼 힘든 세월 속에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한 세대’라는 의식을 막연하게나마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록 개인 백세인의 삶의 형편은 여유롭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풍요한 ‘현재’는 그러한 과거와 대비되는 “좋은 시절”의 의미를 가진다. 어찌 보면 백세노인들이 보이는 생에 대한 애착은 “좋은 시절”에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는 역사적 격동기를 지나고 개인의 생애주기 상으로는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난 백세노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기간동안 진정으로 평안한 삶,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시급하다고 본다.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초고령 노인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 본 연구가 극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수명연장이 건강악화와 의존성의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들 스스로가 노년기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가 하는 '주관적인 평가'가 삶의 질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치중해 왔다는 제한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100세 노인들과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오래 삶'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의미 부여는 이들의 삶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 장수벨트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49명의 백세노인과 그들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한국의 백세노인들에게서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는 테마는 자신의 장수에 대해 표현되는 변명과 일종의 죄의식이었다. 많은 노인들이 장수는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으며, 오래 사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럽다'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나 서구의 초고령 노인들이 대부분 자신의 장수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매우 대비되는 것이었다. 현장조사의 초기단계부터 관찰된 한국의 백세노인들의 이러한 독특한 반응이 계기가 되어, 본 연구는 '과연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일본이나 서구의 백세노인과 한국의 백세노인들에게 이렇게 상이한 언어로 자신들의 장수를 표현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노인

들이 말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노인들이 '오래 삶'을 '괴로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상황적 요인들을 탐색하여 보았다. 둘째는 '문화적 해석'으로, 한국의 백세노인들의 '오래 삶'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반응을 노화 및 장수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며, 보완적으로 한국의 백세 노인들의 오래 삶에 대한 해석의 독특성을 설명해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일본이나 서구에 비하여 한국은 초고령 노인들에 대한 사회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인부양의 과제가 전적으로 개별 가족원에게 맡겨져 있으며 따라서 상당수의 백세노인들의 객관적 삶의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한국노인들의 '오래 삶'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약 1/3은 자신들의 건강이 나쁠 뿐 아니라 이미 스스로도 노년기에 속하는 자녀세대들의 건강상태도 나쁘거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한국농촌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놓여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세인들이 자신의 장수에 대하여 긍정적 의미부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백세노인들은 또한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신들에 대한 부양이 전적으로 자녀의 부담으로 놓여진다는 점과 연관하여 자신들의 '오래 삶'을 죄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의 백세 노인들이 '오래 삶'에 대해 연결시키는 부정적 언어와 설명은, 백세노인들이 자녀에 대한 감사함, 미안함 등의 심적 부담을 표현하는 한 방식인 것으로 보였다. 일본이나 서구와 같이 초고령 노인을 타겟 집단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의 100세 노인들이 한국근대의 역사적 격동기를 살아온 세대로 전쟁과 빈곤 등으로 인한 가족원 특히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빈도가 높다는 코호트적 특성에서도 '오래 삶'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해석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가족 내 노인세대의 장수를 젊은 세대의 단명, 즉 자녀의 수명과 연결시

키는 한국 전통사회의 문화적 해석, 속설과 결합되어 '오래 삶'에 대한 노인들의 죄의식을 구성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조사대상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의 장수와 '자식의 죽음'을 직접적 인과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문화적 해석은 서구나 일본의 어떠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장수와 관련된 한국문화의 독특성을 예시해주는 매우 귀중하고 흥미로운 연구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좋은 죽음'에 대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정의에 '자식을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것', 즉 '죽음의 순서'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매우 중요한 구성요인이라는 점도 한국의 백세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부정적 표현에 기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기대되는 '문화적 각본'이 나이 들 및 노화과정에 대한 해석과 주관적 평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서 초고령 노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초고령 노인에게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백세노인들의 '죽고 싶다'는 말이 그들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문화적으로 구성된 '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인지 하는 점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부정적 표현들이 백세노인들이 자신의 장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객관적 현실과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삶의 질이 상당부분 생애과정에 따른 기회와 제약을 정의하는 문화적 각본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를 사회구조의 변화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늘어난 노년기에 의미를 부여할 각본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노인, 노년기의 삶에 대한 전통적 규범과 기대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나, 그를 대체할 새로운 노년관련 문화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초고

령 노인들이 이러한 문화적 각본의 부재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는 집단일 것이다. 과거의 문화와 인구학적 조건에 기초한 전통적인 지침은 현대 사회에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초고령기까지의 생의 전체 단계를 포괄하는 완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적용이 가능한, 연령에 적절한 행동규범, 역할규범,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적 해석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초고령 노인들과 부양자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고령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연령집단의 하나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빨리 이러한 인구학적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맥락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장수문화, 초고령 노인에게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화와 노년의 의미 및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일(2001). 장수시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생존전략. 한국노년학 21(1), 167-181.
- 김성혁(1998). 제주도 백세인의 장수요인 규명을 위한 현상학적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1), 40-63.
- 김신미·이윤정·김순이(2003). 노인과 성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95-110.
- 이규태(2000). 한국인의 의식구조 3. 서울 : 신원.
- 임춘식(2001). 고령화 사회의 도전. 서울 : 나남.
- 조명옥(1997).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와 준비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색 사례연구. 한국노년학 17(3), 1-35.
- 최성재(2002). 장수의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 일본 및 핀란드 백세인의 특성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22(2), 183-207.
- 한경혜(1993). 사회적 시간과 한국 남성의 결혼 연령의 역사적 변화 : 생애과정 관점과 구술생활 사법의 연계. 한국사회학 27(1), 295-315.
- 한경혜(2002). 장수의 문화적 측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한국노인과학 학술단체 연합회 학술회의 발표집. 서울 : 한국노인과학 학술단체 연합회
- 한경혜·이정화·김주현(2002). 한국 100세 노인 가족. 가족과 문화 14(2), 59-84.
- Beard BB(1991). Centenaries : The New Generation. NY : Greenwood Press.
- Bury M, Holme A(1991). Life After Ninety. NY : Chapman and Hall Inc.
- Hagestad GO(1986). Dimensions of Time and the

- Famil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6), 679-694.
- Iowa's Oldest Old : Strength in Experience. *The Iowa Stater*, February(1998).
- Katata J(1992). Longevity Culture in Okinawa, Japan. *한국노년학연구* 1, 45-51.
- Martin P(1992). Personality, Life Events and Coping in the Oldest-ol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 19-30.
- Martin PC, Rott B, Hagberg(2001). Personality and Coping among the Oldest Ol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
- Myerhoff BG(1978). *Number our Days*, NY : Simon and Schuster.
- Pascucci MA, Loving GL(1997). Ingredients of an Old and Healthy Life : A Centenarians Perspectiv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5(2), 199-213.
- Poon LW, Sweaney AL, Clayton GM, Marriams SB, Martin P(1992). Georgia Centenaria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1), 1-17.
- Samuelsson SM, BB Alfredson, B Hagberg, G Samuelsson (1997). Swedish Centenarians Study : a multidisciplinary study of five consecutive cohorts at the age of 100.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5(3), 223-253.
- Science News (2001. 03. 10). Making Sense of Centenarians : Genes and Lifestyle help people live through a century.
- Shimonaka Y, Nakazatio K, Homma A(1996). Personality, Longevity, and Successful Aging among Tokyo Metropolitan Centenar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2(3), 173-187.
- Wagner CG(1999). The Centenarians are Coming. *The Futurist*, 1999(May), 16-23.
- Zheng Z, Wang Z, Zhu H, Yang J, Peng H, Wang L, Li J, Jiang X, Yu Y(1993). Survey of 160 Centenarians in Shanghai. *Age and Ageing* 22, 16-19.